



제목	Perceptions of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 B. Tauris
발행일	2014. 1. 29.
저자	Ali M Ansari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1848858305

**내용 요약**

『이란의 자각』에서 저자는 사산 페르시아 왕조를 시발점으로 사파비 왕조와 카자르 왕조를 거쳐 지금의 이슬람 공화국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에 의하면 이란의 역사는 풍부한 신화와 서사적 전통으로 채색되어 있고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와 문화이론가, 그리고 정치적 사상가들이 이란의 역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란의 자각』에서 저자는 이란의 민족주의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이란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과거 페르시아의 문학적 유산을 활용한다. 이 책의 저자 안사리(A. M. Ansari) 루미와 사디, 그리고 하피즈를 자신의 책 속으로 초대하여 수피 시인들의 신비주의적인 시를 읽음으로써 이란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

이란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서구 세계와의 만남을 이해하고 그 역사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 책에는 헤로도토스와 고레스(Cyrus, 키루스 2세) 대왕도 등장하고 20세기 초 헌법 운동에 깃들어 있는 이란의 자각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